

병무청, 인공지능(AI) 활용한 ‘업무비서 서비스’ 도입으로 더 똑똑해진다

- 인공지능(AI) 기반에 병무행정지식 약 10만 건을 결합한 ‘인공지능(AI) 워크메이트’ 구축
- 분석·통계, 국회업무, 질병코드-신체등급 안내 등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지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정부의 AI 전환 정책에 발맞춰 병무행정에 특화된 생성형 AI 서비스 ‘AI 워크메이트’를 10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병무행정 전반의 AX*(AI Transformation)를 1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 단순히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업무방식 자체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

‘AI 워크메이트’는 병무청이 오랜 기간 축적한 정책자료, 법령·규정, 업무 매뉴얼, 민원상담 사례 등 약 10만 건의 병무행정 지식을 기반으로 직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부 생성형 AI 서비스다.

병무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범정부 AI 공통기반과 병무행정 전문지식 약 10만 건을 결합하고, 실제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업무 특화 AI 에이전트 8종*을 구축한다.

* ①문서초안작성 ②국회업무 ③분석·통계 ④민원답변 작성 ⑤언론홍보 ⑥다국어 번역
⑦질병코드 기반 신체등급 안내 ⑧병무자료 추출

이는 단순한 생성형 AI 질의응답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병무청이 축적한 전문지식과 업무절차를 AI에 연계하여 병무데이터 분석·통계, 국회업무, 질병코드-신체등급 안내, 병역처분 검증 등 일하는 방식 전반을 혁신하는 AX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병무청은 지난 7월에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 중간 보고회에서 AI 워크메이트를 시연하며 병무행정 AX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자리를 통해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는 AI가 지원하고, 직원은 정책 기획, 복합민원 해결 등 책임과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더욱 집중하도록 업무체계를 전환해 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에는 AI기반 병무민원 상담 챗봇 고도화, 병역면탈 의심사례 분석, 군 입영 추천, 병력동원 모의지정 등 병무청 고유 업무에도 AI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사후처리 중심의 행정을 데이터 기반의 예측·선제 대응 행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AI 워크메이트 구축을 통해 병무행정 AX를 본격화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직원의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AI 지원 도구를 갖게 되었다”라며, “병무행정에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병무행정 디지털 혁신을 앞당기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병역자원국 정보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백상현 (042-481-2634)
		담당자	사무관	송광민 (042-481-2644)